대안가정

통권16호 (2006년 겨울/계간) http://www.daeanhome.org

2. 스케치 / 2007 정기총회
4. 집중 / 2007 주목할 사업
5. 집중 / 대안가정 길잡이
6. 대안가정 일기 (6가정 발췌)
9. 편지
10. 상담원 수첩
11. 그림일기
12. 대안가정 운동에 참여하는 여섯가지 방법
14. 2006년 상담현황
15.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
16. 창립5주년 후원의 밤 행 · 복 · 나 · 눔

◀ 돌잔치 경비를 후원한 예은이네 가족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7. 3. 15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5

2007 정기총회

2007년 대안가정운동본부 정기총회가 2월 8일(목) 진석타워 웨딩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기총회는 법인의 가장 중요한 회의이기도 하지만, 대안가정 가족들과 대안가정운동본부 회원, 반가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훈훈한 잔칫날이나 다름없답니다. 7시부터 자유롭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8시부터 총회를 진행하고, 이어 대안가정 가족들과 함께 어울림마당을 가졌습니다. 대안가정과 마음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자~ 잔칫집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 맛있는 뷔페와 함께 자유로운 식사교제

▲ 지금은 회의중. 사뭇 진지하죠?

▲ 개회선언,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

▲ 개울가의~올챙이 한 마리~
이사님들의 솔선수범 율동으로 어울림마당 시작!

▲ 디헤네는 언제나 최다인원 참석이랍니다

▲ 빈손으로 돌아가시면 섭섭하실까봐 작은 선물도 준비 했습니다. 선물은 아이들이 손수 수령! ㅋㅋ

▲ 멀리 상주에서 성민이네도 오셨구요

▲ 정민, 진이, 병산이네 대안가정

▲ 마지막은 다함께 손을 맞잡고~ 합창

돌잔치 대신 나눔을~ 예은아, 고마워~♡

지난해 LOVE CONCERT에서 합창지휘를 해주신 구교청 선생님의 딸, 예은이.

거창한 돌잔치 대신 그 비용을 대안가정을 위해 쓰기로 했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정기총회 중에 한자락 시간을 내어, 자리한 모든이들이 함께 예은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예은아! 부모님 바램처럼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렴!

2007년 주목할 사업

대안가정 아동의 가정위탁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는 위탁아동과 대안가정 친자녀를 대상으로 대안가정과 가정위탁 상황에 대해 바람직하게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아동 교육캠프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캠프 이후 일상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보다 크고 넓은 마음과 눈으로 자신의 삶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캠프에서는 가정위탁의 최우선 당사자인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대안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고 궁금한 것,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되는 만큼 더욱 알차게 준비합니다. 기대해주세요!

▲ 2006 작은캠프

♤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세부 내용 :

구 분	내 용
큰캠프 (2박 3일)	• 가족이란 뭘까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 어떻게 대안가정 가족이 됐을까 • 대안가정 · 친가정 부모님께 편지쓰기 • 경제교육
작은캠프 (1박 2일)	• 나의 마음 그리기 • 우리가 만드는 대안가정 이야기 • 가정위탁 동화 읽기

대안가정운동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가장 수고하고 고마운 분들, 바로 대안가정 가족들이지요. 하지만 그동안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조촐한 선물로 인사를 대신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만큼은 다릅니다. 하나은행 공익신탁기금의 지원으로 대안가정운동 활성화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거든요.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잘 골라서 올해는 기분좋은 선물을 많이 많이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또 이번 사업으로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대안가정 사례동화집을 제작해서 대안가정운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 지원 : 하나은행 공익신탁기금

♤ 세부 내용 :

구 분	내 용
대안가정 지원사업	• 가정의 달 지원 • 명절(추석, 설) 지원 • 어린이날 선물지원 • 위탁아동 생일선물지원
출판 · 홍보사업	• 홈페이지 리뉴얼 • 대안가정 사례 동화집 제작

▲ 26차 하나은행 공익신탁기금 기증식

대안가정 부모를 위한 지침서
「대안가정 길잡이」

아동 *: 내가 나쁜 아이여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지 못하나요?*

대안가정 부모 *: 세상에 나쁜 아이란 없단다. 간혹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다 어느 정도는 말썽을 피운단다.*

아동 *: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잘못해서 헤어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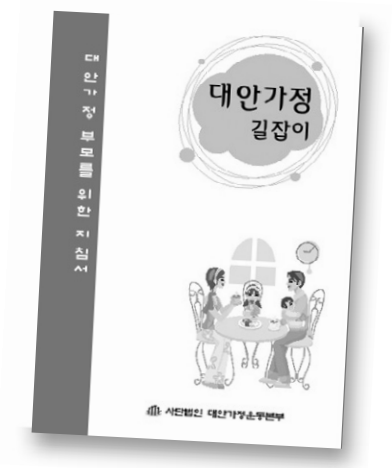
대안가정 부모 *: 엄마 아빠가 헤어진 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지 네가 뭘 잘못해서 헤어진 게 아니란다. 어른들의 세계는 좀 복잡해서 지금 네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단다.*

----「대안가정 길잡이」 '위탁아동과 위탁에 대한 대화방법' 중 발췌

대안가정 부모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지침서, 「대안가정 길잡이」가 발간되었습니다. 「대안가정 길잡이」는 지난 5년간 대안가정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던 다양한 문제와 욕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안가정 부모님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이었던 위탁에 대해 대화하기, 아동-친부모 만남, 친가정 귀가에 관한 다양한 문제와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입양과 위탁의 차이, 호칭의 문제, 친가정과 대안가정의 관계 설정, 친자와 위탁아동의 갈등, 맞벌이 부부도 가능한지, 그리고 혹 위탁아동이 대안가정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등 일반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대안가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대안가정운동에 자연스러운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대안가정 길잡이」에 대한 언론보도와 라디오 인터뷰가 나간 후로 책을 받아보고 싶다는 신청 전화가 쇄도해서 한동안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었고, 살짝 발송비 걱정을 하기도 했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1장 대안가정
2장 위탁아동
3장 대안가정 사례
4장 위탁에 대해 대화하기
5장 아동 - 친부모 만남
6장 위탁아동 귀가준비
7장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8장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해
9장 가정위탁과 입양
10장 궁금해요!

* 책자신청 및 대안가정 신청
☎ 053-628-2592

* 「대안가정 길잡이」는 해피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진솔이네

2006. 12. 14 / 크리스마스트리

아이들이랑 함께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했다. 진솔이도 덩달아 신이 났다. 산타할아버지가 예쁜 선물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작은 트리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올해 우리 가족에게 많은 행복과 축복를 주신 것처럼 내년 한해도 진솔이와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소박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소망한다. 손길이 필요한 네명의 아이들로 인해 몸은 피곤하지만 난 행복하다. 진솔이의 눈이 또롱또롱하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다오.

2006. 12. 24 / 진솔이 하루종일 바빠요

교회 가는 날은 항상 바쁘다. 아이들 다 씻겨서 옷 갈아입히고 진솔이 물건 챙기고 그러다보면 집안은 전쟁터 같다. 요즘 진솔이가 집에서 하는 일은 위에 있는 물건은 무조건 바닥으로 다 던져 내리기. 종이는 보이는 대로 찢거나 뜯어 먹는다. 오빠들 장난감은 다 진솔이거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다 주워 먹는다.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해야 한다. 사고도 치지만 잘하는 것도 많다. 우선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고... 요즘은 일어서는 연습이 한창이다. 소파나 책상을 잡고 일어나서 손을 놓고, 몇 초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는다. 온 가족들은 박수를 쳐 준다. 그때의 표정은 온 세상을 다 정복한 것처럼 의기양양하다.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며 눈빛을 마주치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이요, 기쁨이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진솔이에게 고맙고, 기특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샛별이네

2006. 12. 28 / 샛별이가 엉...엉

키178의 아들놈과 125의 샛별이가 머리를 맞대며 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티격태격 언성이 높아진다. 문제의 발단은 텔레비전. 그것도 만화프로 때문이었다. 급기야 며칠 전 과자를 혼자 먹었다느니, 쥬스도 오빠만 마시고 등등 오만가지의 치사한 이야기가 오고가더니 샛별이가 엉엉 울어댄다. 아들놈은 옆에서 생글 생글 웃어대고... 20분 후 학원에 가기위해 일찍 저녁을 먹는 아들 옆에 샛별이가 슬그머니 왔다. 그리고 둘이 사이좋게 반찬을 나눠먹는다. 칼로 물베기이다.

2007. 1. 16 / 샛별이는 구렁이띠^^..

일곱살배기 박 샛별. 아직도 자기가 뱀띠인지 궁금해 하길래 장난삼아 '구렁이띠'라 하니 아주 의아한 얼굴로 쳐다본다. 분명 아빠가 뱀띠라고 알려줬는데 헷갈리는 얼굴이다. 여섯살은 뱀띠, 일곱살은 더 컸으니 구렁이띠라 하니 내친김에 여덟살이 되면 무슨 띠인지 묻는다. 요즘 들어 부쩍 궁금증이 많은데 잘못 건드린 것 같다. 일곱살배기 호기심을... 그러나 성의껏 대답은 해줬다. '이무기띠'라고... 더 궁금해하는 샛별이를 남겨두고 화장실 간다며 벌떡 일어났다. 나머지 식구들은 기절할 듯이 웃어대고 영문을 모르는 샛별이도 웃어댄다.

2007. 1. 23 / 종이접기

종이접기가 유행인지 하루에 한가지씩 친구들에게 배워서 집에서 꼭 복습을 한다. 이상한 것은 친구에게 배워서 접어오는 것은 제대로 모양을 갖췄는데 집에서 혼자 접어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 오늘도 지갑을 접어준다며 열심히 접었건만 샛별이에게만 지갑으로 보인다. 접어놓고 이상한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역시 지갑이라며 인심 쓰듯이 준다. 2차는 접은 종이접기 벽, 냉장고, 거실유리에 붙이기. 나름대로 신발도, 물고기도, 꽃도 붙인다. 보는 식구마다 뭐냐고 물으면 이것은 '물고기' 이것은 '신발'. 그래서 우리는 또 웃는다.

어진이네

2006. 12. 1 / 오랜만에 쓰는 일기

요즘 어진이 어찌나 많이 자랐는지... 키만 큰게 아니고 머리도 영리해져서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술술... 며칠전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자마자 종이딱지 몇 개를 꺼내면서 선생님이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주셨다고 했다. 엄마가 "우리 어진이가 뭘 잘해서 선생님이 이런걸 주셨을까 한번 물어봐야겠네"라고 했더니 안색이 싹 바뀌는거다.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른대로 말하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주신게 아니라고 했다. 내일 선생님께 모르고 가져갔다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노라고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울며 싫다고 했다. 선생님이 어진이 용기있는 아이라고 칭찬하실거라 해도,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엄마가 전화로 말씀 드릴테니까 너도 꼭 하라고 했다. 심각하게 생각 안했는데 요놈이 너무 머리를 쓰는 것 같아 걱정 된다. 사랑이 부족해서인가 했더니 우리 딸 말이 그보다 더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고 하는데...

2006. 12. 9 / 알건 다 알아

언젠가 "어진이 누가 낳았어?"하고 유도해서 엄마가 낳지 않고 다른 엄마가 낳았고 나는 키워주는 엄마라고 이야길 했었다. 듣는둥 마는둥... 그러다가 얼마 후 다시 "어진이 누가 낳았어?"했더니... "다른 엄마가..."가슴이 쿵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오늘 목욕을 하면서 어진이가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여자는 형아를 뭐라고 불러? 여자는 누나를 뭐라고 불러?" 그러다가 어린이집에서 배웠는지 "어머니는 누구야?" "어진이가 크면 엄마를 어머니라고 불러..."그러다 "어진이 어머니는 누구야?" 했더니... "나... 낳아준 아줌마" 세상에.. 다 알고 있었네. 엄마가 물었다. "보고싶어?" 대답안함. 마음이 아프다.

2007. 1. 18 / 종민이 형과 함께

어진이 감기가 깨끗하게 낫지 않은 상태에서 종민이형과 누나가 오게 되었다. 형아를 그렇게 보고싶어 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마음껏 놀지를 못했다. 종민이형은 너무 잘 먹어서 살이 많이 쪘다. 다니면서도 아이들이 계속 먹는데 우리 까칠이 어진이는 입도 데지 않으려 한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돼서 자꾸 속이 상했다. 얼굴만 크고 키만 크지 아주 허깨비처럼 말라있다. 제발 좀 잘 먹어라.

2007. 1. 19 / 우리집 풍경

요즘 하늘이는 TV삼매경에 빠졌답니다.
뭐라고 중얼 중얼...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 듣는답니다.
(엄마의 거짓말은 무죄?)

- 하늘이가 좋아하는 놀이: 아빠하고 숨바꼭질
- 하늘이가 좋아하는 노래: 반짝 반짝(이때는 한사람도 손놀이에 빠지면 안됨-하늘이가 쫓아가서 손을 잡고 손놀이하라고 끝까지 보챔)
- 하늘이 좋아하는 음식: 콩
- 하늘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자동차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늘이네 집은 웃음꽃으로 시작되어 웃음꽃으로 마친답니다.

하늘이네

2007. 2. 11 / 썰매장에 간 하늘이

아침부터 엄마는 뭔가 서둘렀다. 교회 집사님, 장로님, 형아, 누나들도 왔다. 드디어 눈 썰매장이다. 스피커에서 시끄럽게 노래가 나온다. 아직 사람이 많지않다. 아빠는 나를 태우더니 끌고 올라간다. 다 올라가서 내 뒤에 탓다. 호루라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른다. 다른 사람들도 난리가 났다. 쌩쌩 바람이 지나간다. 눈 깜짝할 사이 벌써 내려왔다. 나는 다섯번째 내려올 때 잠잤단다. 나보다 엄마가 더 재미있었다. 하늘이 일기 끝.

다혜네

2006. 11. 19 / 원주나들이

오랫만에 아이들하고 함께 가까운 원주나들이를 했어요. 가을은 이미 겨울에 자리를 내어주고 앙상한 가지들이 가득했지만 마음은 포근하고 행복한 주말이었답니다. 내의를 입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이쁘지 않나요? 저녁시간 활동복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스럽게 내의만 입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함께 드러누워 오손도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싶어진답니다^^ 행복한 겨울밤. 군고구마라도 한 입 베어 물어야겠네요~~*

2006. 11. 22 / 다혜생일이 가까워요^^

내일은 놀이방에서 생일잔치를 한다고 하네요. 다혜도 명단에 있어서 챙겨가야 하는 준비물을 샀답니다. "다혜 내일 놀이방에서 생일 잔치한데~" 다혜...심각하게 콧소리를 내며 하는 말. "헝~ 싫어! 생일잔치 집에서 할꺼야~" "놀이방에서 내일 친구들하고 먼저하고 나중에 집에서 또 하자" "헝~"

에고 에고... 놀이방에서 생일잔치를 한다니까 다혜 생각엔 집에서 안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나저나 시간이 참 빨리 흐르네요. 다혜가 우리집에 와서 세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모두 축하 해주실꺼죠?? ㅋ

2007. 1. 11 / 먼저가기

언니랑 오빠는 방학이라 학원가는 시간이 다혜보다 늦답니다. 어떤 날은 언니랑 오빤 자고 있는데 다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날도 있답니다. 다혜는 "언니 학교 안가? 오빠 학교 안가?"라며 혼자 놀이방 가야하는 걸 의아해한답니다. 맘 같아선 다혜도 놀리고 싶지만... 여자아이 셋이 하루 종일 떠들고 노는 걸 겪어보신 분은 제 심정을 아실랑가요?? 도저히 인내의 한계를 느껴서...ㅎㅎ 암튼, 오늘도 다혜는 먼저 집을 나섰답니다. 방학이 왜 이렇게 긴지... 아이들은 하루하루 지나는 방학 벌써부터 아쉬운데 엄마는 어서어서 방학이 끝나기만을 손꼽고 있습니다. 아... 이제 24일 남았답니다. 헐~

2007. 1. 19 / 누나들 이름

오늘 아침 혜성이 외가에 데려다주는 길에 누나들이 모두 동행했다. 매일 엄마하고 둘이서 가는 길을 누나들과 같이 가니 혜성이가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차 안에서 혜진이가 누나들 이름을 묻는데 혜성이 대답이 걸작이다.

혜진 : 혜성아 혜진누나 이름 뭐야?
혜성 : 은 혜 진
혜진 : 혜윤누나 이름은?
혜성 : 은 혜 윤(혜윤이는 성이 강씨다)
혜진 : 큰누나 이름은 뭐야?
혜성 : ..... 은 큰누나

나도 애들도 모두 웃느라 넘어갔다. 졸지에 성도 이름도 다 바뀌어 '은큰누나'가 된 유현이의 딜레마는 제대로 이름을 가르쳐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다. 왜냐하면 한동안 혜성이가 '유현아!' 하고 부르는 걸 겨우 '큰누나'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해뜨는 집

2007. 2. 1 / 혜윤이 아빠 만나고 왔어요

혜윤이가 아빠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빠랑 같이 하룻밤 지내고 오는 건 싫다고 해서 몇시간 놀다 오기로 했답니다. 오빠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왔습니다. 티셔츠 두벌을 핑크색 이쁜 가방에 담고, 손목에는 시계도 하나 차고, 머리핀도 꽂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언니들에게 자랑하느라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언니들 반응이 시원찮았든지 갑자기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는 "지금 몇시지?" 하더랍니다. 가방을 꺼내서는 "진짜 예쁘다!" 혼자 감탄을 하고... 혜윤이랑 아빠랑 만나는 게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아빠랑 다시 같이 사는 건 힘들지만 되도록 자주 만나면서 간격을 좁혀나갈 생각입니다.

진솔이를 보내며...

진솔 엄마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솔이를 위해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항상 가슴 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진솔이 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시니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기에게 너무나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마음에 힘을 얻어 열심히 일하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자리를 잡아서 진솔이를 누구보다도 예쁘게 키우겠습니다. 정말이지, 진솔이를 데리고 있는 이 마지막 밤이 짧기만 하네요. 애기를 꼭 보내야만 옳은 길인지 정말 수없이 울고 갈등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온갖 시름 끝에 우리 진솔이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데리고 오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더라구요. 돈은 못 벌더라도 우선 방이라도 한 칸 얻어서 우리 진솔이를 꼭 데리고 와서 엄마로써 하지 못한 부분을 몇 배로 하려고 합니다. 진솔이 정말 잘 부탁드릴께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진솔이(12개월, 여)는 엄마가 혼자 돌보다 생계가 어려워 대안가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29일, 대안가정으로 간 진솔이는 대안가정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며, 엄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답니다.

하연이 어머니께

하연 고모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하연이 고모입니다. 이렇게 하연이를 사랑해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뵙게 되어 기쁘네요. 말씀 안드려도 가슴 깊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연이 옷, 장난감, 기저귀, 분유 등 생필품은 넣었는데 부족한게 있을 듯하네요. 이미 많은 천사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신 어머니께서 아직 대학생인 저보다 훨씬 잘 아시리라 믿어요. 감히 비교도 할수 없네요. 이렇게 보면 저 되게 초보티 나네요.^^; 일년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뜻있는 분들을 본 받으며 말이지요.

우리 하연이는 행복한 아이입니다. 어머니, 따스한 마음으로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구요. 늘 웃음과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하연이(7개월, 여)는 머온 아빠의 군입대를 앞두고 2007년 3월 5일 위탁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연이를 엄마대신 키워왔던 고모는 하연이의 생활습관들을 예쁜 엽서로 만들어 편지와 함께 보내왔습니다.

정민경 상담팀장

칭찬에 너그러워지자!!

학교를 졸업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책과는 자연스레 담을 쌓고 지내온 나... 해가 바뀌고 '올해는 한 달에 두권이라도 책을 읽자' 라며 나름대로 작은 목표를 갖게 됐다. 최근 의사소통과 관련된 몇 권의 책을 읽게 되면서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됐고, 내가 '칭찬에 너무 인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책의 여러 내용 중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잘한 일을 대해 칭찬하는 것에는 인색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 지적하고 야단치기 쉽다'는 그 말이 너무 크게 다가왔다. 칭찬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말이다.

칭찬과 관련된 책을 읽는 내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이, 우리 조카와의 일들이 떠올랐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쁘고 사랑스러운 조카가 처음으로 컵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고,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 박수를 치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했지만 여러 번 반복될수록 으레 당연하다고 여기고 지나쳐버리게 됐다. 반면에 가끔 과자를 먹다가 맛이 없다 싶으면 여기저기 뱉고, 바닥에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등 조금이라도 잘못한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다니면서 못 하게 하고 잔소리를 하고 있었다. 조카는 못하게 하거나 잔소리를 할수록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안경을 식탁위에 벗어놓고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조카가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안경을 들고 나에게로 왔다.(고모 안경써...하는 표정으로) 고모가 항상 안경을 쓰고 있었으니 세수하고 나면 당연히 필요하겠지 싶었나보다. 그런데 이게 웬일?? 안경다리가 반대로 휙~ 꺾여진채 나에게로 오고 있었다. 순간 조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안경이 얼만데...' 싶은 생각에 화가 났고 나의 표정에서도 역력히 드러났다. 조카는 아무것도 모른채 잘한다고 했는데 고모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멍~' 하니 서있는 것이 아닌가...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불연듯 나름대로 착한일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됐을텐데 싶어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그제서야 따라서 웃고 있는 우리 조카! 얼른 안아주면서 "고모 안경쓰라고 가지고 왔어? 아이고 예뻐라~~" 칭찬을 해주었다. 칭찬을 하고 나니 내가 언제 화를 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워졌다.

칭찬은 듣는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지만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말을 하기 전에 한 템포 늦추고, 단 몇 초만이라도 여유를 갖는다면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는 것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아이에게 칭찬을 한다는 것은 행복과 웃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리라... 앞으로 그 씨앗 열심히 팍팍~ 뿌려보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렵니까~?

그림일기

영남이공대 아동복지학과 '대안가정운동' 강의

2006년 11월 22일, 영남이공대 아동복지학과에서 김명희 사무국장이 '대안가정운동'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최선남 교수님과 관심 가져주신 학생들 모두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몰래산타가 다녀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곤히 잠든 아이들 머리 맡에 몰래산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장난감, 시계, 인형, 옷, 목도리... 취향따라 종류도 가지 가지~ 행사를 지원해주신 해피빈, 고맙습니다.

입학 축하해주세요!

솔이, 성민이, 병산이, 대현이는 초등학교! 정민이는 중학교! 유현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히 유현이는 대안학교로 진학해 앞으로 기숙사에서 공동체생활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입학하는 학교에서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길 바랍니다.

집을 떠나며!

이제 나는 고등학교에 간다.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시간 참 빨리간다. 3년뒤면 어른이잖아. 오, 이런! 해뜨는집에 온 게 내가 4학년때니까 벌써 5년이 넘었구나. 5년이라... 오래된 듯 하기도 별로 안된 듯하기도 하다. 해뜨는집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물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때쯤이면 조금 더 자라 있을까? 머리도, 마음도, 더불어 키도... 기숙사 생활 또한 걱정이다. 잘할 수 있으리라 믿어본다. 혜성이 보고싶어서 주말엔 꼭 집에 와야겠다. 이제 드디어 떠난다. 일주일 전만해도 떠난다고 좋아했는데 짐을 싸면서 이제 걱정이 앞선다. 대안학교지만 입시에 대한 걱정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물론 공부외에도 걱정되는 것은 많다. 기대반, 걱정 반. 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싶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지금보다 더 성장해 있는 나를 기대한다!

-기숙사로 떠나는 날 아침, 유현

▲ 해뜨는집 가족

대안가정운동에 참여하는 여섯가지 방법

01 신한 '아름다운 카드' 포인트로 후원하기

아름人 arumin.co.kr
대한민국 사랑 실명제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이 아름다워 집니다

신한 '아름다운 카드' 포인트로 후원하기
아름인 / 기부네트워크 / 기부처찾기 (대안가정운동본부)
아름인 : www.arumin.co.kr

02 모금함 나눔

단골가게에 나누셔도 좋고, 가족들 주머니 잔돈을 모으셔도 좋습니다.
'에이~ 이까짓 동전, 번거롭기만하지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는 분들은 특히! 연락주세요.
대안가정운동의 원동력은 바로 이처럼 아주 작은 참여랍니다.

*모금함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신 나눔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03 E·MART 이·마트 영수증으로 후원하기

구매금액의 0.5%가 후원금으로 적립됩니다.
고객만족센터나 무인적립기에서 아래 번호로 적립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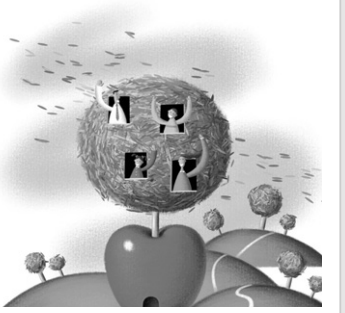
월배점 168번	만촌점 97번	성서점 146번
칠성점 94번	반야월점 52번	경산점 39번
달서점 60번	비산점 38번	시지점 85번

※ 이마트 규정변경으로 분기별 적립만 가능 (4월~6월까지 영수증은 6월까지만 적립가능)

이마트에서 즐겁게 쇼핑하신 후에는 '영수증 후원' 잊지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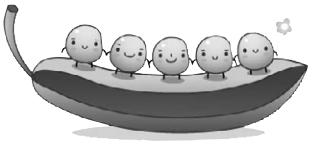
04 함께 만들어요! '해맑은 아이들의 집'

해맑은 아이들의 집은
엄마역할을 하는 선생님과 5명내외의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입니다.



대구은행 140-10-000273 (예금주 : 대안가정운동본부)
*모금목표액 : 6,000만원 *현재까지 모금액 : 28,803,593원

05 대안가정운동본부 해피로그 놀러오세요!



네이버 해피빈 - 대안가정운동본부 해피로그에 오시면
핸드폰, 신용카드, 네이버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 또는 정기후원이 가능하답니다~

http://happylog.naver.com/foster.do

06 미래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 자람도우미가 되어주세요.

자람도우미는 아동을 지정하여,
매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적립할 저축액을
후원하는 후원자입니다.
신청 ☎ 053) 628-2592

* 아동발달지원계좌(CDA)는 요보호아동이 후원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1:1 매칭펀드로 적립해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적립금은 만 18세가 되면 아동에게 지급되어 학자금이나 취업 · 창업 · 주거마련 등 자립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상담현황 (2006년)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 월	아동위탁 의뢰상담	대안가정 신청상담	대안가정 양육상담	친부모상담 (친부모만남)	행정지원 상담	주치의 관련상담	타기관 연계상담	기타상담	계
1월	9	10	23	12(1)	5	2	9	2	72
2월	7	5	25	27(1)	11	–	7	9	91
3월	8	18	12	7	11	–	4	14	74
4월	5	1	9	8	10	–	3	2	38
5월	2	6	12	11(1)	10	–	4	2	47
6월	7	2	14	11(1)	2	1	4	3	44
7월	9	7	32	35(2)	9	–	8	1	101
8월	18	16	38	17(1)	5	–	15	2	111
9월	25	22	16	11	22	4	11	2	113
10월	–	2	21	13(2)	12	–	2	8	58
11월	20	12	7	4	7	2	3	2	57
12월	4	3	15	15(2)	3	–	3	4	47
계	114	104	224	171(11)	107	9	73	51	853
2005년	201	140	206	99(2)	78	14	64	73	875
증감(%)	△ 43	△ 25	9	76(450)	37	△ 36	14	△ 31	△ 2

□ 상담유형별 현황

상담 / 월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웹상담	기타상담	계
1월	61	3	4	3	1	72
2월	78	5	6	1	1	91
3월	57	7	9	1	–	74
4월	37	–	–	1	–	38
5월	39	4	–	4	–	47
6월	38	4	–	2	–	44
7월	83	8	5	5	–	101
8월	94	8	7	–	2	111
9월	91	6	13	3	–	113
10월	51	4	3	–	–	58
11월	49	1	6	–	1	57
12월	40	3	2	2	–	47
계	719	53	55	22	5	853
2005년	723	34	50	60	8	875
증감(%)	△ 1	56	10	△ 64	△ 45	△ 3

이병희법률사무소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병희법률사무소는 초기내담자에게 법률 상담비를 받지 않는 대신,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하시도록 권유하고 계십니다.
- 후원해주신 분
  김익배, 문기용, 박기홍, 박순자, 박영미, 삼정디지털, 설석환, 송창화, 신순자, 오운산, 이동천, 정명만, 진석타워
- 후원 금액 : 15만원

■4/4분기 회비 및 후원 내역

(2006년 10월~12월)

이사회비

김규원	90,000
배성우	90,000
배순균	90,000
송광익	240,000
우극현	90,000
은재식	60,000
이병희	150,000
이수형	600,000
이왕욱	300,000
이태원	150,000
정영숙	100,000

정회원 회비

고석	30,000
권오걸	30,000
김명희	60,000
김봉섭	20,000
박선아	30,000
우병걸	150,000
이국진	30,000
이재용	60,000
장종호	90,000
한미숙	10,000

후원회원 회비

(주)모틱스	300,000
(주)TCN대구케이블방송	150,000
(주)TCN대구케이블방송	150,000
경북여고 91회 동기회	60,000
고병민	30,000
곽운섭	30,000
권경아	30,000
권다영	15,000
권미경	20,000
권영활	15,000
권용한	15,000
권일섭	30,000
권점숙	30,000
권청애	30,000
권현수	20,000
금병태	20,000
금차경	60,000
김경숙	30,000
김광미	15,000
김광재	30,000
김국종	40,000
김기발	15,000
김길종	30,000
김낙원	30,000
김덕겸	30,000
김명국	30,000
김명기	30,000
김명희	30,000
김미자	30,000
김삼범	60,000
김상기	15,000
김수득	30,000
김순자	30,000
김연경	30,000
김영남	15,000
김영대	30,000
김영학	90,000
김옥연	15,000
김원희	30,000
김유라	60,000
김은주	15,000
김은형	30,000
김의룡	30,000
김재수	30,000
김중열	15,000
김진적	30,000
김진수	30,000
김창규	30,000
김하수	30,000
김혜영	15,000
김호근	15,000
김환준	30,000
김효선	60,000
김효신	30,000
김휘동	30,000
나눔회	40,000
동우회회원	30,000
동진산업	60,000
류보현	15,000
메리츠화재대구보상서비스센터	174,000
문옥희	20,000
문우경	30,000
민순기	30,000
박광립	60,000
박기호	60,000
박동영	30,000
박동준	30,000
박만근	30,000
박분옥	30,000
박미경	30,000
박미영	30,000
박성천	30,000
박순우	90,000
박시하	30,000
박신연	30,000
박옥란	30,000
박은진	30,000
박임순	30,000
박전훈	30,000
박형룡	60,000
박혜숙	90,000
배명섭	10,000
배성훈	30,000
배소영	20,000
배창환	5,000
배태순	60,000
백기웅	20,000
백석환	30,000
변중구	60,000
서숙	30,000
서경희	60,000
서진천	150,000
서호석	30,000
손병혁	20,000
손성라	30,000
송계무	30,000
송창섭	30,000
신은정	30,000
심진완	30,000
심형순	15,000
안이정선	30,000
양덕근,김혜경	20,000
양재원	30,000
양정희	30,000
양창근	30,000
오길수	30,000
오칙렬	10,000
오태동	150,000
오현주	30,000
우언조	30,000
우연경	30,000
유희탁	30,000
윤은주	60,000
윤순영	30,000
윤영철	60,000
윤정희	30,000
윤정희	30,000
은완수	30,000
이담	150,000
이창	60,000
이금련	30,000
이동환	30,000
이두옥	30,000
이문기	60,000
이미선	30,000
이미선	30,000
이미숙	30,000
이병호	15,000
이선희	110,000
이성희	30,000
이순임	30,000
이신자	30,000
이영석	15,000
이영찬	15,000
이영화	60,000
이영희	30,000
이옥화	30,000
이원삼	30,000
이유미	15,000
이윤근	300,000
이윤재	30,000
이일영	20,000
이재성	60,000
이재수	30,000
이주용	30,000
이지은	30,000
이철훈	30,000
이춘희	90,000
이현숙	30,000
이혜영	30,000
이혜진	15,000
이호용	60,000
임아정	15,000
임영진	30,000
임익성	15,000
임진규	15,000
장경은	30,000
장경철	30,000
장병화	30,000
장호덕	30,000
전영평	30,000
전제혁	120,000
전준환	15,000
정경란	60,000
정미옥	120,000
정용성	30,000
정한교	20,000
정희우	15,000
조성태	150,000
조영교	30,000
조정자	30,000
채승옥	30,000
최경호	30,000
최병훈	60,000
최봉진	15,000
최상곤	10,000
최원창	90,000
최현정	60,000
최홍태	30,000
하정옥	60,000
한미경	30,000
한은희	30,000
허유희	30,000
홍동표	30,000

일반후원

김종한	30,000
몰래싼타지원	481,500
아마트단체지원	65,810
이지연	30,000
이병희법률사무소	150,000
해피빈10월	75,600
해피빈11월	16,000
해피빈12월	6,000
허정미	18,000

특별후원

김명희	100,000
이병희	70,000
이사회	50,000
이수형	132,500
장효철	100,000
정민경	100,000

그룹홈 기금

신경숙	30,000
최명훈	15,000
한게임해피빈기부처 모금	1,000,000

물품후원

심미숙	음료

■4/4분기 재정보고

(2006년 10월~12월)

세입				세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회비			10,736,500	사무비			10,839,290
	회비		10,736,500		인건비		9,662,220
		이사회비	1,960,000			급여	7,650,000
		정회원회비	510,000			제수당	1,500,000
		후원회원회비	7,714,000			보험부담금	512,220
		특별회비	552,500		업무추진비		344,000
후원금			1,917,910			기관운영비	200,000
	후원금		1,917,910			회의비	144,000
		일반 후원금	872,910		운영비		833,070
		그룹 홈기금	1,045,000			여비	80,900
차수입			1,000,000			수용비	280,480
	차수입		1,000,000			공공요금	257,490
		기타차입금	1,000,000			차량비	129,000
잡수입			10,934			연료비	20,000
	잡수입		10,934			잡비	65,200
		예금이자	10,494	사업비			3,319,123
		기타잡수입	1,440		일반사업비		3,319,123
						상담사업	220,300
						교육사업	145,500
						대안가정지원	1,074,010
						출판홍보사업	746,480
						그룹홈기금적립비	1,132,833
총계			13,666,344	총계			14,158,413
3/4분기 이월금			644,365	잔액			152,296
합계			14,310,709	합계			14,310,709

♠회비 및 후원 관련 안내

-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로로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금융결제원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입금하신 날짜와 차이가 있습니다. (약 5일 소요)
- 회비 및 후원금은 가능한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대구은행 계좌가 있으신 경우, 계좌를 알려주시면 사무국에서 자동이체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5주년 후원의 밤

행·복·나·눔 에 초대합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창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지원 없이도 대안가정운동본부가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창립5주년을 맞이하며,
대안가정 가족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행·복·나·눔**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일시 2007년 4월 23일(월)
오후 6시 30분~9시

장소 진석타워 웨딩뷔페

행사안내

- 이번 행사는 별도의 티켓을 판매하지 않으며, 후원약정서로 대신합니다.
- 대안가정 가족들과 함께 만찬과 문화공연을 즐기며 행복을 나누세요.
- 경매코너가 있습니다.(미술품, 개인작품, 소장품, 기념품 등을 후원받습니다)

후원방법

- 후원금은 계좌이체나 당일 현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셔서 팩스(053-628-2595)로 미리 보내주셔도 됩니다.
- 후원문의 ☎053-628-2592 daeanhome@hanmail.net

후원계좌 : 대구은행 068-05-005600-9 (사)대안가정운동본부